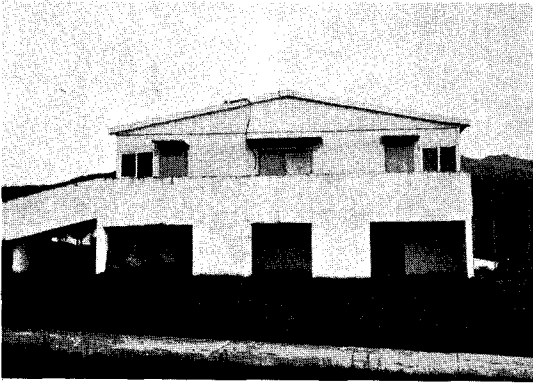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고상식 계사별도건조시설 필요없어 —무허가계사 정화시설 가능—



본회는 지난 11월 7일 고상식 계사와 육계사에는 별도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환경청에 건의하여 고상식 계사의 경우 별도의 건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며 무허가 축산시설도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환경청 회신은 다음과 같다.

건의

가. 고상식 계사란 2층계사로서 2층에서 닭을 사육하고 계분은 자동적으로 1층으로 떨어지게 하는

계사로서 계사와 축산폐수 정화시설(계분발효 건조시설)을 겸비한 계사인 바 이는 인력의 절감과 토지의 이용율을 높임을 물론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고상식 계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축산폐수 정화시설(계분발효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나. 육계농가의 경우 1년에 3~4회전 정도 육계사육을 하는바 1회전당 사육기간이 5~7주로서 병아리를 입추할 때부터 계사바닥에 깔짚을 깔고 사육하며 사육도중 깔짚이 지저분해지면 깔짚을 보충해가면서 청결히 사육을 한 후 1회전 사육이 종료되면 육계를 출하후 일시에 계분을 제거와 동시에 퇴비로 이용하므로 육계농장에 적재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며 시기적으로 처분이 곤란하여 야적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채란양계에서 나오는 계분과 같이 발효건조시설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눈·비만 피하고 오물만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재 보관할 수 있는 퇴비사(시멘트바닥에 블록으로 반벽정도 쌓고 지붕은 함석 또는 스테트)로 대체 설치도 가능토록 조치 바람.

다. 현행 표준설계도상의 계분건조시설은 계분의 보관은 가능하나 건조는 불가능한 실정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활용가치가 적은 편이므로 전양계농가(육계농가제외)가 기계화시설에 의한 계분건조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를 권장하거나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오니 기계화에 의한 계분건조시설 설치자금의 지원(5만수 기준 총소요자금 2,500~3,000만원중 보조 50% 융자 50%) 대책을 강구 바람.

라. 양계농가가 축산폐수 정화시설(계분건조시설)을 설치코자 당국에 신고 및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육시설(계사)이 무허가(전양계사의 50% 이상이 무허가로 채란계사 65%, 육계사 95% 이상이 무허가 건물임—간이계사 포함)라는 이유로 계분건조시설의 건축허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니 무허가 사육시설 소유자라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계분건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회신내용

○건의 “가”에 대하여 : 고상식 계사시설은 양계시설과 건조시설을 동일 건물에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중 건조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고상식 계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 경우 계사 하층부 건조시설의 유효용량이 계사시설 면적 100㎡당 2.0㎡이상으로 하여야 함.

○건의 “나”에 대하여 : 건조시설은 축산분뇨의 건조·보관 및 악취 발산을 방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며 귀협회에서 건의하신 퇴비사의 경우도 환경청 고시 제88-21호에서 정한 설치기준(면적)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정화시설로 인정됨.

○건의 “다”에 대하여 : 설치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국민투자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전 축산농가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 “라”에 대하여 : 우선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산시설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득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허가 축산시설이라 하더라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토록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였씀.

비료생산업 허가 있어야만 수분조절제 첨가와 계분판매 가능

본회가 지난 11월 1일 양계농가에서 생산된 계분에 대해서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분조절제를 첨가하여 발효 건조시켜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줄 것을 농림수산부와 환경청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의 회신은 비료생산업 시설기준

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득하여야만 수분조절제를 첨가하여 발효건조시킬 수 있으며 판매도 비료생산업 허가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하여왔다.

효과적인 계분처리로 환경오염방지에 동참하려는 양계인의 뜻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농림수산부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허가 또는 판매업을 등록치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부산물처리를 가능케하여 환경위생개선과 아울러 영세농어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대한양계협회의 건의사항 대로 계분의 수분조절제(왕겨, 쌀겨, 톱밥등)를 첨가하여 발효건조할 경우에는 소정의 비료생산업 시설기준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비료생산업허가 없이 판매할시는 농작물의 비료피해와 비료유통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개정은 지난하며, 현행법하에서도 불량부산물비료 유통으로 인한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서는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득하여 판매코자 하여도, 수도권 정비개발법령, 환경보전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규제대상으로 비료생산업허가가 불가한 실정임.

11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11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규)가 지난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경기양계협동조합 광주집하장 준공으로 농장에서 계란판매 및 가격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또한 11월내

로 안성집하장이 준공되면 계란유통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채란양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예상했다. 최근 몇몇 상인들의 횡포에 대해 생산자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단합하여 이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채란양계산업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16명의 채란분과위원을 선정했다. 12월부터는 월례회를 매달 15일 오후 2시에서 1시로 앞당겨 개최키로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11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병아리 가격이 초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병아리 가격은 부화장에서 생산 감소와 육계업자의 입식의욕이 왕성해 높은 시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12월은 11월보다 비수요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생산이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신중한 입식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월 육계시세는 높은 시세가 유지되리라 전망했다.

또한 지난 13일 유성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육계인대회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김동성 박사와 미국 마이랜드연구소 오화탁 박사의 "경제적인 콕시듐병 예방법 및 미국의 브로일러 질병예방"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채란계 부화종계분과위원회 개최



11월 채란계 부화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신흥종)가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난가임에도 불구하고 채란농가의 입식의욕이 매우 저조하다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11월은 병아리 입식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계분처리 등의 문제와 증대추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심리가 팽배해 병아리 입식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 봄에도 계란가격은 계속 높게 형성되리라 전망했다.

제2회 전국 육계인대회 개최



전국 육계인의 화합의 잔치인 제2회 전국 육계인대회가 지난 11월 13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5백여 명의 육계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육계인대회에서는 최성복 대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는 예원농장 정용길 사장의 “육계인이 본 미국의 육계산업과 우리의 자세”, 하림식품 김홍국 사장의 “육계 계열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본회 이규성 부장의 “계분 건조시설 및 계사 건축에 관련된 법령해설”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 육계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1. 육계업은 우리의 천직이며 우리가 주인이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생업사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육계인이 된다. 2. 우리 육계인은 동업자 의식을 굳게 갖고 서로서로 협조하면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 육계인은 가격안정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자율적 생산조절 및 생산성 향상과 소비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4. 우리 육계인은 닭고기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값의 병아리입식을 자제하며 기타 육계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행위와 육계산물의 수입에 적극 대처하기로 강력히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참가자 일동은 육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을 시정하여 줄 것 등을 골자로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대정부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정부 건의문

우리 전국의 육계인 일동은 그동안 크고 작은 가격파동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인내심과 긍지를 갖고 국민의 제2식량이자 건강식품인 닭고기를 생산공급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육계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 육계인 스스로가 해결해 보자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각종제도 및 정책의 모순으로 생산비가 가중되는 등 우리 육계인이 받는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는 우리 육계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어 전국 육계인대회 결의로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철폐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생산자인 육계인이 부담하고 있어 결국 생산비에 가중되어 생산비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음은 극히 모순된 제도라 생각되니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를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축산원자재 수입관세면세

사료곡물,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등 국산화 보급율이 낮아 수입이 불가피한 축산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국내에서 유통되는 축산원자재(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세를 면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허가 축사(불법전용농지 포함)의 양성화

우리 전국의 육계인은 대개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고 무지하여 허가절차를 잘 모르거나 농지관련법 또는 산림법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의식·무의식중에 생업수단의 일환으로 무허가로 축사(90% 이상이 철제 파이프 하우스식 간이축사임)를 건축하여 육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고의적으로 범법을 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책감을 갖고 불안한 가운데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오니 89.10월말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취해 주셔서 육계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육계 사육시설 개선 및 생산·처리·유통자금의 파격적인 지원

우리 육계업은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사육시설이 낙후되어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육계 생산물을 처리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육계사육시설 개선 및 생산처리·유통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닭고기 수입개방 반대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아직도 그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구조마저 불합리하여 안정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기 "1"내지 "4"호의 건의내용을 위시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저해요인이 되는 모든 사항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닭고기의 수입을 개방할 경우 육계산업의 몰락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을 때까지 수입개방에 반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편집위원회 개최



89년도 제11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임병규)가 지난 1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창간 20주년 특집호를 발행하고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창간 20주년 기념호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또한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2월 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육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육계산업 부흥을 위해 본회가 주선하여 육계산업 각 단계별 관련종사자들이 고루 모여 구성된 육계산업발전협의회(회장 박영인)가 지난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계열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계약조건을 좀더 공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육계 계열화사업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육계사육자 대표와 계열주체 대표간의 협의결과 몇가지 내용을 수정 첨가한 후 협의회의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육계 계열화사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짐에 따라 시행초기단계에 있는 육계 계열화사업에 지침서가 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앞으로 육계산업발전협의회는 ○육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종사자 및 닭고기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열화체계를 조기정착시킨다. ○통합구성요소인 자재(병아리, 사료,약품,기구등),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부문 및 육계산업과 관련된 정부, 협동조합, 학계,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완전수직통합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기업 및 협동조합의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초기 이해관계를 조정 증진시켜 원만한 기능분화 및 공정한 보수배분을 실현케 한다. ○육계산업 안정발전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산업의 자구책 및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위의 실행요강을 수행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집회와 유인물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본지 창간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예정

—12월 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양계가 89년 11월호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

하여 오는 12월 7일 월간양계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축산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채란계사의 설계 및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가금학회와 공동주최로—



본회와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11월 1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채란계사의 설계 및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채란계사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1백여명의 채란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광천농장 김영환 사장의 “채란계사의 설계”, 고창양계 김기경 차장의 “계사 환기시설의 개선”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김기경 차장은 환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사의 구조나 환기시설 설치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그 시설을 얼마나 쉽게 조절 관리할 수 있는가를 선택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수시로 닭이 필요로 하는 환기량과 기류를 조절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제2회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86명 응시

—12월 1일 영동병아리감별학원에서—

오는 12월 1일 영동병아리감별학원에서 실시예정

인 89년 제2회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에 총 86명이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 11월 8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는데 고등감별사는 6명, 갑종감별사 80명이 응시했다. 한편 감별사 자격시험이 끝난 후 초생추 감별사 경진대회를 갖기로 했다.

자모회 대상 요리 강습회



본회는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자모들을 대상으로 닭고기·계란요리강습 및 시식, 우수성 영양강의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요리강습회는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주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관으로 본회에서 후원하였으며 행사 날짜 및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학 교 명	지 역	참석인원	진 행
10/25	동국민학교	부 평 시	153명	1) 닭고기·계란 우수성 영양강의
10/27	서천국민학교	충남서천	148명	2) 요리강습
11/ 7	중동국민학교	서 울 시	156명	3) 전사·시식
11/27	당곡국민학교	서 울 시	151명	4) 팜프렛(양계산물홍보) 배부
계	4개교		608명	

동남아 육계산업시찰단 모집

본회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육계인들의 동남아 육계산업 시찰을 주선하기로 하였다.